

##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첫 국빈으로 각하를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와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각하께서는 콩고민주공화국에 희망을 심어 오셨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7%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각하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 낸 '프레토리아 평화협정'과 '다레살렘 선언문'을 통해 평화 정착의 확실한 토대를 구축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나는 국내외적으로 평화와 안정의 기반 위에 선 콩고민주공화국이 중부 아프리카의 중심국가로 떠오르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각하께서 이룩한 큰 성과에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나라가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석유·구리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경험·기술·자본이 합쳐지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을 계기로 전자·통신·건설 등에 있어서 활발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 양국 간 인적교류가 늘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우리 정부사절단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해서 실질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각하의 누님이신 자넷 카빌라 한·콩고개발재단 이사장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명예박사학위도 받으셨습니다. 이번 각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도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국이 함께 추구해 온 민주·평화·번영의 이상을 아프리카와 아시아 모든 나라로 넓혀 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의 건승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